

## 성화 VI :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

성화는 두 방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의 권세에서의 점진적 해방과 적극적인 면에서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의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은 지난 주에 공부를 했으므로 오늘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8:1-2 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우리는 이 구절이 의미를 자세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라고 되어 있지만, KJV 에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는(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4 절에서도 지지합니다.

로마서 8 :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4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그렇지만 NIV 에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는(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가 없이 우리 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마찬가지로 그릭 사본에도 KJV 나 NIV 처럼 번역된 것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KJV 을 따라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말은 이 구절을 성화에 역점을 두어 해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KJV 의 해석을 따라 롬 8:1-2 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롬 8:4 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8 : 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어 칭의된 우리는 일상적인 신앙 생활에서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는 해방과 자유의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 영적 생활이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기독교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어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성화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 I.        육은 무엇인가?

육은 타락한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 준 타락한 성품으로 오염을 말합니다. 타락으로 오염된 인간은 두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독립하여, (독립성)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 갑니다(무의탁성).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 갑니다. 이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타락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 : 1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창세기 11 :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창세기 11 :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창세기 11 : 4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평야를 말합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한번 하늘까지 높게 온땅으로 넓게 창대케 되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립하여, 우리 힘으로 창대케 되어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 : 5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창세기 11 : 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창세기 11 :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1 :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 :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하나님을 떠나 내힘으로 창대케 되보자 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과 무의탁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후 약 400 년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2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바로 약 400 년전에 조상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창대케 되려 했던 것은 거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당신께서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2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400 년 전에 조상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창대케 되려고 한 것은 거부하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적이다 육적이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누구로 부터 기원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나온 것은 모두 영이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육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 부터 기원한 것은 모두 영이요, 타락한 아담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육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의 지배를 받아 창대케 되려 하고, 영적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아 창대케 되려고 합니다. 외관상 같은 창대함으로 비칠 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 II.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 :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πνεῦμα ὁ θεός)

John 4:23-24 (NAB, NIV, NAB, NASB, NKJV---- <sup>1</sup>)

<sup>24</sup>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하나님은 영이다(God is Spirit.)’

the Spirit 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Spirit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Spirit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spiritual 하십니다. 따라서 Spirituality 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시며, 의지적이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 감정, 의지는 영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이성, 감정,

<sup>1</sup>. KJV, ASV 에는 부정관사 a 가 있음. πνεῦμα ὁ θεός

John 4:24 (KJV)

<sup>24</sup>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의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속할 때 그것은 영적이 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속할 때 영적이라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III.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일 수 있나?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나?

사람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충만할 때 만이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위에서 성령 충만한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사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화의 삶을 둘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대두됩니다. 성령과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과 윤리적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과 윤리적 연합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으므로,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공부해 보십시오.

### 1. 성령 충만

**에베소서 5 :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자기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하여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왕적 통치가 그 사람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속적으로 지배할 때 인격 안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 갈라디아서 5 : 23 은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먼저 꽃이 만발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없이 열매부터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꽃이 먼저 만발해야 성령의 열매가 주렁 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2. 다음에 우리는 성령 지배의 본질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공부하십시오.

요한 복음 14:19 에선

요한복음 14 :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과 당신을 같은 나로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격자이심과 같이 성령님도 인격자이십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고 동력, 힘이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이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따라서 2000 년전에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받은 것과 똑같이, 오늘날도 그와 똑같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적 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배 또한 말씀에 의한 인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의 위치**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의 두드러진 특징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가 인격적이지, **물리적 지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배하신다.

요한복음 14 :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 :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두 인격간의 교제는 말로 이루어진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도 그 분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완전한 굴복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거룩케 하시는 사역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로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간 성화는 죄의 권세에서의 점진적 해방과 적극적인 면에서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 두 방면에서 이루어진 다는 것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믿음에서의 성장, 성화에서의 성장, 두 방면에서 진행되지만, 믿음의 성장도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열매가 충만하다는 것, 또 성화의 성장도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열매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에 따라 행함에 힘쓰는 여러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